

한국 고등학생의 데이팅 폭력에 관한 연구

박 옥 임 · 배 영 숙* · 김 정 숙**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 광양중등중학교*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Research on Dating Violence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ark, Ok Im · Bae, Yeong Suk* · Kim, Jeong Sook**

Dept. of Consumer and Family - 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Kwangyang Jungdong Middle School, Kwangyang, Korea*

Dep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ctors of dating violence. The subjects were 548 adolescents in high schools. The gathered information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 t-test, ANOVA, and correlation by using the SPSS 10.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58.6% of respondents have had one or more dates with the other sex, so the association with the other sex is remarkably universal and natural. (2) In the case of physical violence, 18.5% claimed that they have been injured in some ways, and 18.3% said some kind of harm was done to them. (3) In terms of psychological violence, 32.8% reported psychological damage and 35.6% reported being harmed. (4) In terms of sexual violence, 20.8% reported damage, while 18.2% said they were harmed. (5)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overall experience of violence. (6) When we looked at the social demographic factors, we found that boys rather than girls, and vocational school students rather than academic school students have more violent experiences.

Key words: dating violence, high school students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급격한 신체 변화와 성적 성숙 등으로 성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현저한 변화 중의 하나는 동

성 친구와의 친밀한 우정에서 이성에 대한 우정과 낭만적인 애정으로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정옥분 1999), 이성교제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다. 이성교제(Dating)란 한 쌍의 남녀가 미래의 상호 작용, 정서적 헌신 혹은 성적 친밀감 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이끌어 내는 상호 보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Sugarman & Hotaling

1989)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이성교제의 경험을 통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자기 성찰과 발달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 전의 이성교제는 남녀간의 가치관을 비교해 보고, 적합한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사회생활의 중요한 과정 수행에 도움을 준다(박경란 등 2001). 최근에는 성 개방 풍조와 대중 매체를 통한 성의 상품화 및 성적 자극 등으로 이성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교제가 증가하였으며, 점차 연소화 되어가고 있다(박소영 1998). 청소년의 이성교제 기회의 확대 및 보편화는 '명시적인 기능, 사회화 촉진 및 욕구 충족 등의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성교제는 갈등이나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함께 존재한다. 그 중의 하나가 데이팅 폭력(dating violence)인데, 이성교제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폭력이 증가되고, 폭력의 종류 및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이성교제의 부정적 현상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데이팅 폭력의 증가는 데이트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 후에도 지속되어 부부폭력 및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손예진·전귀연 2003; 정혜정, 200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상당수가 데이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문희(1993)의 연구에서는 36%(남학생 22%, 여학생 13.9%), 울산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성정(1996)의 연구에서는 35.1%, 한국청소년연구(1996)에서는 50.2%, 가장 최근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옥(2001)의 연구에서는 50.5%의 학생들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의 증가는 데이팅 폭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팅 폭력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은 Makepeace(1981)로 부부 사이의 폭력이 혼전의 구애 단계에서 이미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하여, 출생가족(family of orientation)과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에서 각각 일어나는 폭력의 연결고리가 바로 구애 단계의 폭력의 경험이라는데 착안하여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데이팅 폭력은 결혼 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부 폭력(spouse abuse)과의 연관

성으로 인해 주목하게 되었다.

데이팅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발생률이 약 40% 정도로 데이팅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O'Keefe 1997, 1998), 데이팅 폭력을 경험한 사람 중 71.4%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였다고 보고하였다(Henton 1983; 손혜진·전귀연 2003). 또한 그의 연구에 의하면 644명의 고등학생 중 78명(12%)이 데이팅 폭력을 경험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도 교제 중인 20%의 미혼 남녀에게서 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Arias et al. 1987; Riggs et al. 1990; White & Koss 1991).

한편 국내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졌다(김예정 1993; 김용미 1996 1999; 이영숙 1998; 김정란·김경신 1999; 김예정·김득성 1999). 국내 연구는 대부분 이성교제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데이팅 폭력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성역할 태도(Bernard 1983), 폭력에 대한 수용 태도(김예정 1993),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김예정 1993; 전희정·지영숙 1999; 김현옥 2001; 서경현·이경순 2002; Riggs et al. 1990), 물질남용(Stets & Henderson 1991) 등을 들 수 있다.

이성교제시 발생하는 데이팅 폭력의 발생율과 형태가 부부 폭력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선행 연구들(Cate et al. 1982; Lane et al. 1985)을 볼 때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방식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결혼생활에서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팅 폭력이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팅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변인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데이팅 폭력을 예방하여 건전한 이성교제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대도시(대구, 부산, 광주광역시)에 재학중인 155명, 중소도시(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강원도 속초시, 전북 익산시)에 재학중인 279명, 농어촌 지역(충남 청양군, 전북 함열읍, 전남 보성군)에 재학중인 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총 600명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된 문항이 많게 파악된 52명(8.7%)을 제외하고, 548명(91.3%)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설문지의 기본 자료는 선행 연구 및 기존의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는 모두 3개 부분, 8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 부분은 고등학생이 경험한 데이팅 폭력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데이트의 경험 유무, 데이트 상대자, 데이트 기간, 데이팅 폭력(심리적 폭력 5문항, 신체적 폭력 8문항, 성적 폭력 7문항)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다루었다. 두번째 부분은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변인으로 김예정과 김득성(1999), 김현옥(2001) 등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성 역할 태도 5문항, 폭력에 대한 태도 5문항, 약물복용 여부 4문항, 가정 폭력 7문항, 학교 폭력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범주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부분은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학년, 계열, 종교, 지역 등으로 구성되었다. 성역할 태도의 Cronbach's $\alpha=0.73$, 폭력에 대한 태도 Cronbach's $\alpha=0.71$, 약물복용 Cronbach's $\alpha=0.74$, 가정 폭력 Cronbach's $\alpha=0.76$, 학교폭력 Cronbach's $\alpha=0.73$ 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002년 6월 2일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의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간단

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배부, 작성,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versio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N)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변인과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였다.

4. 용어 정의

데이팅 폭력(dating violence)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데이트 폭력 또는 데이팅 폭력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정혜정(2003)이 밝힌 미혼의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한 데이트뿐만 아니라 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선택과정과 관련된 낭만적인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정서적, 신체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57.7%(316명), 남학생이 42.3%(232명)로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32.5%,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33.8%로 거의 비슷한 분포였다. 계열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49.1%, 실업계 고등학생이 50.9%이었고, 종교는 '없음'이 42.5%, '있음'이 57.5%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지역은 대도시가 24.6%, 중소도시가 50.9%, 농어촌 지역이 24.5%로 중소도시의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 548명 중 이성교제를 경험했거나 이성교제 중인 고등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58.6%(321명)이었다. 구본석(1975)의 연구에서는 42.7%, 명철수(1982)의 연구에서는 45.5%, 한국 청소년 연구(1996)에서는 50.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옥(2001)의 연구에서는 50.5%의 학생이 이성교제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48)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316	57.7
	Female	232	42.3
Grade	1st	178	32.5
	2nd	185	33.8
	3rd	185	33.8
Course	Academic Course	269	49.1
	Vocational Course	279	50.9
Religion	Have	233	42.5
	Not Have	315	57.5
Residential Area	Large city	135	24.6
	Medium-small city	279	50.9
	Rural	134	24.5
Experience of Dating(N=548)	Yes	321	58.6
	No	227	41.4
The Partner of Dating (n=321)	Middle · High School Student	261	81.3
	College Student	36	11.2
	Others	24	8.4
Period of Dating(month) (n=321)	< 1	91	28.3
	1-2	70	21.8
	3-5	61	19.0
	6-11	65	20.2
	12≤	34	10.6

데 본 연구에서는 58.6%가 유경험자로 나타나 이성교제는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선행연구 결과보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트 경험의 상대자로는 중·고등학생이 81.3%(261명), 대학생이 11.2%(36명), 직장인이나 기타가 8.4%(24명) 순으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또래집단이나 선배, 후배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 앞서 조사된 연구 가운데 이양남(1984), 한국 청소년 연구(1996), 박소영(1998), 김현옥(2001)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같은 또래의 친구나 남학생은 낮은 학년의 여학생, 여학생은 높은 학년의 남학생과 사귀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데이트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이 28.3%(91명), 2-3개월 미만이 21.8%(70명), 6개월-1년 미만이 20.2%(65명), 3-6개월 미만이

19%(61명), 1년 이상이 10.6%(34명) 순으로 나타나 급속한 사회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이성교제의 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인다.

2. 데이트 폭력의 경험정도

조사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의 경험정도를 신체적, 심리적, 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548명의 전체 응답자 중 신체적 폭력의 피해 경험은 18.5%(101명), 가해 경험은 18.8%(103명)였으나, 데이트 유경험자 321명 중 피해 경험 31.5%, 가해 경험 32.1%로 심리적 폭력에 비해 약간 낮은 비율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용미(1996)의 연구에서는 25%, 김예정(1999a)의 연구에서는 40.4%로 나타나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옥

Table 2. The type and frequency of dating violence(*plural answers)

(N=321)

Variable/content	damaged experience		harm experience	
	N	%	N	%
*Physical violence/	101	31.5	103	32.1
Throw and break things.	31	9.7	36	11.2
Throw and be injured.	26	8.1	22	6.9
Push powerfully.	65	20.2	51	15.9
Slapp on the cheek.	24	7.5	34	10.6
Kick or beat a man.	26	8.1	27	8.4
Thrash with things like belt, heavy stick.	7	2.2	11	3.4
Beat a person up.	13	4.0	8	2.5
Stabb a man with sharp things like knife.	11	3.4	7	2.2
*Psychological violence/	180	56.1	195	60.7
Heap insults upon or heap abuses on a man	86	26.8	80	24.9
Give trouble with keeping silent	140	43.6	139	43.3
Roar with anger	59	18.4	116	36.1
Say and behavior with malicious intent	33	10.3	61	19.0
Assume a threatening attitude	33	10.3	26	8.1
*Sexual violence/	114	35.5	104	32.4
Tease or blame comparing sexual organs of body with others.	69	21.5	72	22.4
Give trouble with speaking sexual organs of body in the presence people.	58	18.1	49	15.3
If you don't have a sexual act, I threatened to breaking relation.	28	8.8	21	6.6
Force a person to take alcohol or medicine for sexual act.	13	4.0	17	5.3
Force a person to have a sexual act.	25	7.8	19	6.0
Make an attack on sexual organs of body.	22	6.9	16	5.0
Have a sexual act because of violence.	14	4.4	16	5.0

(2001)의 연구에서는 11.9%로 대학생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데이팅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폭력 유형과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와 가해 모두 세계 밀치기가 20.2%, 1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선행연구인 김현옥(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피해의 경우 자기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경우(9.7%),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것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8.1%) 등으로 나타났고, 가해의 경우에 자기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경우(11.2%), 손바닥으로 뺨을 친 경우(10.6%),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경우(6.9%) 등으로 나타났다. 데이팅 단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폭력의 유형은 극심한 정도의 폭력은 아

나나 데이팅 폭력이 부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Lane et al. 1985; Lane et al. 1982)를 볼 때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해와 가해의 경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 선행 연구 Makepeace(1981), 김용미(1996)와 차이가 나는 것은 선행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며, 오늘날의 여학생들은 소극적인 여성성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이나 의사 표현이 적극적이라는 Stets(1992)의 연구와 같이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도 남녀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폭력의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 548명 중 32.8%(180명), 가해 경험은 35.6%(195명)로 나타났다. 김현옥(2001)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심리적 폭력의 경험 14.4%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팅 유경험자 중 심리적인 폭력의 피해 경험은 56.1%(180명), 가해 경험은 60.7%(195)로 피해와 가해의 경험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심리적 폭력을 신체적, 성적 폭력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데이트 상대자간의 효과적인 대화 기술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심리적 폭력의 형태를 피해 기준으로 보면, 침묵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경우가 43.6%(가해 43.3%), 모욕을 주거나 욕을 한 경우가 26.8%(가해 24.9%), 화를 내면서 고함은 친 경우가 18.4%(가해 36.1%), 악의에 찬 말이나 행동을 한 경우와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10.3%(가해 경험은 각각 19.0%와 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나 김현옥(2001)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단지 그들이 연구한 심리적 폭력의 세부적인 유형에서는 침묵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경우가 항목에서 빠진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적 폭력의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20.8%(114명), 가해 경험은 18.2%(104명)로 나타났다.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는 23%, 한국성폭력상담소(1996)의 여성 응답자 중 28.1%, 김현옥(2001)의 연구에서는 28.9%가 성적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데이팅 유경험자 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폭력은 피해 경험이 35.5%, 가해 경험이 32.4%로 데이팅 대상자만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은 고등학생들이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성적 폭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성적 폭력을 피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체 중 성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과 빗대어 놀리거나 비난한 경우가 21.5%(가해 22.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며 괴롭힌 경우가 18.1%(가해 15.3%),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성교제를 끝내겠다고 위협한 경우가 8.8%(가해 6.6%),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성행위를 하려고

한 경우 7.8%(가해 6%), 신체 중 성적인 부분을 공격한 경우 6.9%(가해 5%), 폭력 때문에 성행위를 한 경우 4.4%(가해 5%), 성행위를 하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술이나 환각제를 먹인 경우 4%(가해 5.3%) 순으로 나타났다. 1994년 동국대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행위와 노골적인 피부 접촉이 각각 26%였으며, 강간 등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1%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옥(2001)의 연구를 피해 기준으로 보면 껴안기 및 키스하기가 51.4%(가해 56.2%), 신체의 일부 밀착 접촉이 46.3%(가해 47.6%), 신체의 일부를 쳐다보는 행위가 34.3%(가해 50.5%)였고, 성교 강요하기가 6.7%(가해 7.6%)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현옥(2001)의 연구에서는 가해경험의 비율이 피해경험의 비율보다 높는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피해경험이 가해경험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해 경험에 비해 가해 경험은 쉽게 잊어버리거나 폭력이라는 인식 부족과 폭력 피해는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성교를 한 경우가 피해와 가해에서 각각 4.4%, 5%로 나타난 것은 강제적, 폭력적으로 성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성폭력의 경험은 연구마다 상이한 차이가 나는 것은 성폭력의 범주를 신체적인 것으로 제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희롱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팅 폭력 정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팅 폭력 정도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성별, 계열, 학년, 종교유무, 생활지역 등으로 분리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간에는 Duncan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로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해 보면 성적 폭력의 가해 경험과 폭력에 관한 태도, 학교 폭력에서 유의미한 성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적 폭력의 경험이 많으며, 폭력

Table 3. Dating viol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Attitude of sexual role	Attitude of violence	Taking medicine	Family violence	School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Sexual violence	
						damaged	harm	damaged	harm	damaged	harm
Gender/ Female	2.46(.92)	1.68(.62)	1.50(1.17)	1.47(.54)	1.16(.31)	1.51(.68)	1.50(.73)	1.14(.46)	1.14(.44)	1.19(.53)	1.10(.46)
Male	2.44(.92)	1.82(.77)	1.82(1.27)	1.50(.62)	1.29(.56)	1.62(.73)	1.60(.73)	1.19(.47)	1.20(.30)	1.24(.53)	1.40(.52)
t value	.244	-2.29*	-.63	-.67	-3.3**	-1.36	-1.26	-1.04	-1.40	-.70	-5.36***
Course/ Academic course	2.47(.91)	1.66(.60)	1.45(1.11)	1.43(.48)	1.20(.36)	1.54(.72)	1.51(.82)	1.16(.47)	1.15(.47)	1.15(.50)	1.16(.54)
Vocational course	2.43(.94)	1.81(.76)	1.61(1.30)	1.53(.65)	1.24(.50)	1.57(.69)	1.57(.64)	1.17(.46)	1.18(.30)	1.26(.55)	1.28(.46)
t value	.45	-2.53*	-1.58	-2.20*	-1.08*	-.32	-.67	-.16	-.85	-1.78	-2.14*
Religion/ Not have	2.51(.98)	1.71(.68)	1.58(1.31)	1.52(.60)	1.18(.37)	1.60(.72)	1.61(.80)	1.20(.53)	1.22(.52)	1.25(.63)	1.27(.64)
Have	2.40(.88)	1.76(.70)	1.50(1.13)	1.45(.55)	1.24(.49)	1.53(.69)	1.49(.67)	1.14(.41)	1.13(.26)	1.18(.44)	1.18(.38)
t value	1.38	-.75	.84	1.48	-1.55	.81	1.41	1.10	1.88	1.22	1.42
Grade/ 1st	2.54(.86)	1.79(.74)	1.49(1.15)	1.50(.52)	1.23(.37)	1.54(.73)	1.53(.91)	1.15(.42)	1.08(.31)	1.13(.46)	1.19(.53)
2nd	2.46(.95)	1.75(.70)	1.51(1.18)	1.50(.56)	1.21(.40)	1.57(.68)	1.55(.71)	1.17(.47)	1.17(.46)	1.23(.55)	1.30(.61)
3rd	2.35(.96)	1.68(.63)	1.60(1.30)	1.45(.64)	1.22(.53)	1.56(.70)	1.55(.57)	1.16(.49)	1.26(.37)	1.26(.56)	1.18(.35)
F value	2.04	1.20	.41	.19	.02	.07	.028	.02	.41*	1.78	1.96
Residential Area/ Large city	2.34(.88)	1.63(.68)	1.44(1.12)	1.44(.59)	1.15(.44)	1.44(.75)	1.43(.70)	1.17(.64)	1.17(.48)	1.24(.67)	1.17(.52)
Middle-small city	2.53(.92)	1.72(.65)	1.53(1.18)	1.50(.53)	1.24(.42)	1.59(.68)	1.60(.76)	1.14(.37)	1.15(.35)	1.19(.47)	1.24(.54)
rural area	2.39(.96)	1.90(.76)	1.63(1.37)	1.50(.64)	1.23(.44)	1.61(.70)	1.52(.67)	1.20(.44)	1.20(.38)	1.23(.49)	1.22(.50)
F value	2.33	5.36***	.792	.45	2.07	1.57	1.69	.37	1.69	.35	.57

* p<.05 **p<.01 *** p<.00

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교 폭력 또한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의 가해나 피해 양상을 보면 데이팅 파트너들은 폭력 행동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나 남녀가 쌍방간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 보면 폭력에 관한 태도,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적 폭력의 가해 경험이 P<.05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 보다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성적 폭력의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학년별로는 성적 폭력의 피해 경험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은 것으로 드러났을 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Stets 1992; Straus & Gelles 1990)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비해 폭력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보수적인 농어촌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학교가 사회사업의 측면에서 폭력과 상담에 대한 서비스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상관관계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성역할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 약물복용,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등으로 나눠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먼저 성역할 태도는 폭력에 대한 태도 및 가정 폭력과 P<.001 수준으로 유의미했으나 낮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약물복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폭력에 대한 수용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Variable	Attitude of sexual role	Attitude of violence	Taking medicine	Family violence	School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damaged)	Psychological violence (harm)	Physical violence (damaged)	Physical violence (harm)	Sexual violence (damaged)	Sexual violence (harm)
Attitude of sexual role	1.00										
Attitude of violence	.27***	1.00									
Taking medicine	.03	.09	1.00								
Family violence	.12**	.13**	.47***	1.00							
School violence	.06	.18***	.32***	.36***	1.00						
Psychological violence (damaged)	.01	.20***	.33***	.46***	.36***	1.00					
Psychological violence (harm)	.05	.27***	.29***	.30***	.28***	.70***	1.00				
Physical violence (damaged)	-.05	.20***	.20***	.31***	.34***	.69***	.47***	1.00			
Physical violence (harm)	-.04	.24***	.10	.13*	.19*	.48***	.50***	.66***	1.00		
Sexual violence (damaged)	-.02	.12*	.25***	.36***	.29***	.60***	.38***	.73***	.54***	1.00	
Sexual violence (harm)	.01	.18**	.11	.14*	.20***	.44***	.46***	.59***	.59***	.57***	1.00

* p <.05 **p <.01 *** p <.001

여부에 따라 데이팅 폭력의 양상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폭력의 수용 태도가 높을수록 데이팅 폭력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약물 복용은 가정 폭력, 학교폭력, 데이팅 폭력의 유형에 따른 피해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데이팅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 폭력은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 폭력의 경험이 데이팅 폭력에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 것 같다. 즉 가정 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학교 폭력과 약물 복용 경험이 많아지며, 폭력에 대해 수용적이고, 고정된 성 역할을 지향하며, 데이팅 폭력의 경험도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학교 폭력은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 폭력, 대면적 데이팅 폭력(심리적 폭력의 피해와

가해, 신체적 폭력의 피해, 성적 폭력의 피해와 가해)과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학교 폭력의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팅 폭력 및 가정 폭력의 경험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며, 폭력에 대한 태도도 수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폭력의 유형간에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p<.001) 했으며,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아 폭력간에 연관성이 밀접함을 보여준다. 즉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심리적, 성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성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심리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데이팅 폭력의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여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 가운데 58.6%가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답해서 이성교제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데이트의 상대자는 중·고등학생이 81.3%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또래의 친구나 연령 차이가 많지 않은 선·후배와 교제하고 있었다. 또한 데이트 기간은 1개월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아 급속한 사회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이성교제 기간이 예전보다 짧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신체적인 폭력은 전체 응답자 중 피해 경험이 18.5%, 가해 경험이 18.3%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물(김용미 1996; 김예정 1999a)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옥(2001)의 11.9%보다는 증가된 추세이었다. 신체적 폭력의 유형별로는 피해와 가해 모두 세계 밀치는 경우가 20.2%와 1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전체 응답자 548명 중 심리적인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32.8%, 가해는 35.6%로 김현옥(2001)의 14.4% 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폭력은 피해와 가해 모두 침묵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경우로 43.6%와 43.3%, 그 다음이 모욕을 주거나 욕을 한 경우로 26.8%와 24.9%이었다.

넷째, 성적 폭력의 피해 경험은 20.8%, 가해 경험은 18.2%로 김예정(1999b)의 23%, 김현옥(2001)의 28.9%로 보다 성적 폭력의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다른 사람과 빗대어 놀리거나 비난한 경우가 피해 경험 21.5%, 가해 경험 2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 성교가 4.7%로 나타나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교육이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필요하

다고 본다.

다섯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 보다 폭력의 경험이 많았다. 신체적 폭력의 가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많이 경험했고, 폭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서로 높았다.

여섯째,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 모두 전체적 폭력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폭력의 유형간에 상관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고, 상관 계수가 비교적 높아 폭력간에 연관성이 밀접함을 알 수 있다.

2. 제언

이성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가 친밀감을 느끼고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과정은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초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새로운 모형이 제시되어야 하며, 데이팅 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나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에게 이성교제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담 취약 지역인 곳에서는 학교가 사회사업의 하나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모회나 학부모 모임,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학교 교육이 학생이 해의 대상 범위로 넓혀가야 한다. 그리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성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깨닫고, 우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가 성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심리적인 폭력을 폭력이라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기법이 여러 측면에서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훈련 기술의 교육이 재량활동 시간이나 자치 적응활동 시간 등으로 확보되어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팅 폭력의 피해와 가해는 남녀가 상호적이며 폭력 또한 증가 추세이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감정과 의사 표현 능력이 폭력화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에게 데이팅 폭력이 가정 폭력이나 사회적인 폭력의 기초가 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사회 인식이 근절되어야 한다. 성인들은 가시적·비가시적인 폭력을 지양하여 청소년들이 폭력을 미화하거나 폭력에 대한 동경으로 반사회적인 공격 행동을 야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사회에서는 폭력적인 음란영상물 등의 등급제 도입과 성인 중심의 향락문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강제적, 폭력적으로 성교를 경험한 고등학생이 5% 정도로 낮은 비율이지만 서로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성행위가 제외된 점을 생각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의 성교육은 책임성에 기초한 성적 주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또한 기존의 신체적·생리적 변화에 관한 내용보다는 남녀간의 성별 상이성을 고려한 성관계 중심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예: 피임 교육, 낙태 문제, 미혼 부모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구본석(1975)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미(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김용미(1999) 혼전 단계의 폭력 -1990년대의 문헌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7(9), 129-140.
 김예정(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 표출 행동.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예정·김득성(1999a)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 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김예정·김득성(1999b) 데이팅 관계에서 폭력집단의 특성과 신체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4(2), 187-211.
 김정란·김경신(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김현옥(200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이성교제와 교제 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여학생부처(1995) 94 여학생 대학생활, 취업 준비, 성의식에 관한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
 명철수(1982)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서울 시내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란·이영숙·전귀연(2001) 현대 가족학. 학지사, 194-196.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소영(1998)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성의식, 성행동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경현·이경순(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증독성, 한국심리학회지, 7(3), 353-368.
 손혜진·전귀연(2003)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43-63.
 이문희(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성교육 실시의 타당성과 성교육 지도 방향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양남(1984) 중학생들의 이성교제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이영숙(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2-89.
 전희정·지영숙(1999) 청소년의 부모 폭력에 관한 연구-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7(6), 123-137.
 정옥분(1999) 청년 발달의 이해. 학지사.
 정혜정(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41(3), 73-91.
 한국성폭력상담소(1996) 청소년 성문제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대학 내 성폭력 관련 정책. 한국성폭력상담소, 95.
 한국청소년 연구(1996)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실태 연구.
 Arias I, Samios M, O'Leary KD(1987)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during court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82-90.
 Henton JM, Cate RM, Koval JE, Lloyd SA, Christopher FS(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67-482.
 Lane KD, Gwartney-Gibbs PA(1985) Violence in the

- context of dating and sex. *Journal of Family Issues* 6, 45-59.
- Lane MR, Thompson J(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 couples. *Deviant Behavior* 3, 229-244.
- Makepeace J(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O'keefe M(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 O'keefe M(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 Riggs DS, O'Leary KD, Breslim FC(1990) Multiple correlate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 Stets JE, Henderson DA(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 Stets JE(1992) Interactive proces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iolence* 6, 97-113.
- Straus MA, Gelles RJ(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ress.
- Sugarman DB, Hostaling GT(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kers, In Stets, J.E., & Pirog-Good, M.A.,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New York: Praeger.
- White JW, Koss MP(1991) Courtships violence: Incidence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6, 247-256.